

총 청 권 에
新 행정 수도가 건설 됩니다

2002. 12. 8.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기자회견

순서:

오프닝

- 임명장 수여
- 상임추진위원장 인사
- 후보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답변

마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청권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신행정수도 건설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47%의 인구, 정부 중앙부처의 100%,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74%, 100대 기업 본사의 95%, 70%의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교통난과 주택난, 환경오염과 범죄 등 갖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린 결과입니다.

반면 지방은 공동화되고 심각한 발전의 장애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심화되고 지방민에게는 엄청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은 이러한 불균형 현상에 과감하게 메스를 가하여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는 국가개조 프로그램입니다. 과밀집중의 수도권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발전이 가로막힌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수도권집중형 국토를 지방분산형 국토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충청권은 수도로서 적합한 지형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구비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를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입니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상호연계발전이 가능하고, 높은 개발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에는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수 있는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고속도로와 철도·고속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이 잘 되어 있고,

대청호와 금강이 있어 물과 전력 공급이 충분하며,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단지, 청남대, 계룡대, 국립묘지, 생명과학단지 등이 있어 수도 배후의 기본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1년내에 계획 수립 및 행정수도 입지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2-3년내에 토지 매입과 보상을 실시한 후, 임기 내에 부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정부청사 착공 등 가시적인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에는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은 최대한 각 지역에 고루 분산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오해와 왜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든다고 합니다. 40조 내지 50조 원이 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 둔산지구 개발비용과 대전청사 건축비를 포함하여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1조8천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예비비까지 포함하여 6조원이면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걸린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경 임기 내에 청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일 이후를 대비할 때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도권 중심 체제로 통일이 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화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전략적 국가사업이 일부의 오해와 왜곡에 의해 좌절되어서는 안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로서,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신행정수도 건설 의지는 확고합니다. 저의 국가 비전과 국정운영의 철학에서 비롯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권과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위원에는 반드시 충청권 지역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원회 산하에 '신행정수도입지선정분과위원회'를 두어 2003년 말까지 입지선정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것이며, 위원회 사무국은 대전청사에 설치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역사의 물줄기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분권과 분산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할 것인가, 아니면 반세기 동안 계속된 수도권 집중형의 숨막히는 개발정책을 계속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청권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이 지역을 찾을 때마다 뜨거운 지지와 환호를 보내 주신 충남·북, 그리고 대전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